

수입 디젤 세단 선택의 새 기준 “독일차 다 덤벼!”

The New Infiniti Q50

E세그먼트 뺀치는 여유로운 실내 공간
DAS·PFCW 등 혁신적 기술의 집약체
F1 황제 베텔이 직접 주행 테스트 참여
2.2 디젤·3.5 하이브리드 선택 다양화

인피니티(INFINITI)가 독일 3사(벤츠, 아우디, 폭스바겐)가 점령하고 있는 국내 디젤 승용차 시장을 뒤흔들 강력한 신차를 출시했다.

지난 11일 선보인 럭셔리 퍼포먼스 세단 더 뉴 인피니티 Q50(The new Infiniti Q50)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출시 하루만에 200대 계약을 돌파하며 물풍을 일으켰다. 이는 당초 계획한 월 목표 판매량 200대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다. 유려한 디자인과 한 등급 높은 모델들까지 넘보는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양한 최첨단 기술, 강력한 퍼포먼스까지 겸비한 Q50의 장점을 살펴봤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스포츠 세단

Q50은 인피니티가 지난 4년간 선보인 대표 콘셉트카인 에센스(Essence), 에세라(Etherea), 그리고 이머지(Emerge-E)를 통해 다듬어진 브랜드 고유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함축해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한 ‘와이드 앤 로우’ 스타일에 더욱 입체적으로 개선된 더블 아치 디자인의 프론트 그릴이 Q50 디자인의 백미다. 아울러 초승달 모양의 C 필러 등을 통해 전통과 혁신을 모두 담아냈다.

실용성도 겸비했다. D세그먼트(중형)를 넘어 E세그먼트(중대형) 경쟁 모델들과 경쟁할 만큼 여유로운 실내 공간(2885L)을 갖춰 탑승자에게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한다. 더불어 동급 최고의 휠베이스(2850mm)와 여유로운 헤드룸(1002mm) 및 레그룸(1131mm)을 통해 뛰어난 공간 효율성까지 자랑한다.



인피니티의 럭셔리 퍼포먼스 세단 ‘더 뉴 인피니티 Q50’이 탁월한 주행 성능과 고객 눈높이에 맞춘 판매 전략 등으로 출시 하루 만에 200대 계약을 돌파하며 국내 디젤 승용차 시장을 뒤흔들 강력한 신차로 급부상했다.

●업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력

Q50에는 인피니티 기술팀의 노하우가 집약된 세계 최초 첨단기술들이 대거 탑재됐다.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은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Direct Adaptive Steering)이다. 스티어링 휠과 타이어 사이의 기계적인 연결을 없애고 전기적 동력을 이용한 첨단 조향 장치다. 더욱 즉각적이고 정확한 움직임의 제공으로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불필요한 진동이 없어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이 기술은 미국 유명 과학지 파퓰러 사이언스 선정 ‘2013년 최고의 신제품’ 자동차 부문 대상, 캐나다 자동차 기자협회(AJAC) 선정 ‘2014 최고의 신기술 어워드’에서 ‘최고의 혁신 기술상’

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았다.

‘전방 충돌 예측 경고 시스템(PFCW)’도 탑재됐다. 이 시스템은 바로 앞 차량은 물론 그 앞 차량까지 상대적인 속도와 거리를 감지하고 계산하는 기술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여기에 카메라를 통해 차량이 차선 내 중앙으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돕는 ‘액티브 레인 컨트롤(Active Lane Control)’,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ane Departure Prevention)’ 등도 추가됐다. 안전에 관련된 옵션으로는 상위 차종이 부럽지 않다.

이런 첨단 장치들 덕분에 Q50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진행한 신차평가제도

(NCAP)에서 최고 안전 등급에 해당하는 별 5개를 획득했다. 또한 전방 충돌 예측 경고 시스템은 캐나다 ‘2014 최고의 신기술 어워드’에서 최고의 안전 기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F1 황제 세바스찬 베텔의 손길을 거친 탁월한 주행 성능

Q50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인피니티의 브랜드 철학인 ‘영감을 주는 퍼포먼스(Inspired Performance)’를 바탕으로 디자인됐다. 특히 F1 최고의 레이싱 팀인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INFINITI Red Bull Racing) 소속이자 최연소 4연속 챔피언 등극에 빛나는 세바스찬 베텔(Sebastian Vettel)의 개발 참여로 더욱 완성도 높



▲ 더 뉴 인피니티 Q50 내부 인테리어

은 주행 성능을 선사한다. 베텔은 미국, 독일 등 다양한 서킷에서 Q50을 테스트하며, 주행 감각 및 스티어링 휠 조향 반응 등 차량의 전반적인 개발에 참여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판매 전략

Q50은 국내에 2.2리터 디젤 모델(Q50 2.2d)과 3.5리터 하이브리드 모델(Q50S Hybrid)이 출시됐다. Q50 2.2d는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두 사양으로 나왔다. 170마력, 최대토크 40.7kg.m의 2.2리터 직분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됐다. Q50S 하이브리드는 50kW(68ps) 전기모터와 3.5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306ps)을 조합함으로써 최고출력 364마력을 자랑한다.

Q50의 가격은 2.2d 프리미엄 모델 4350만원(VAT포함), 익스클루시브 모델 4890만원(VAT포함)이다. Q50S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6780만원(VAT포함)이다.

한편, 인피니티는 신차 출시를 기념해 인피니티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더 뉴 인피니티 Q50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파이낸스 박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할부 및 리스 조건에 따라 총 세 가지 단계의 혜택 패키지를 제공하며 기본 혜택은 신차교환 프로그램이다. 1년 내 차량 간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공임포함)이 부가가치세 포함 권장소비자가격 30% 이상, 고객 과실이 50% 이하일 경우 신차로 교환해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달라진 ‘쉽’…호텔 건강 관리 패키지 뜬다

TOUR & INFO

액티비티 위주 토달 건강관리 인기
제주해비치·서울신라 패키지 선풍

최근 ‘웰빙’ 숙박이 주목받고 있다.

호텔 등에서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특히 기존에 외국 리조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액티비티 위주의 토달 건강관리 패키지가 주목받고 있다. 물론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나른한 봄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제주 해비치호텔 ‘라이프 피트니스 스타일링’ 패키지 내보

제주도 해비치호텔은 최근 관광과 레저, 휴식, 건강이 모두 포함된 복합 상품 ‘라이프 피트니스 스타일링’(LFS) 패키지를 내놨다. 2박3일이 최소 기간인 이번 패키지는 제주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뷰 객실이 기본으로 주어진다. 또 체크인한 당일 저녁 해비치 최고의 조리팀이 제안하는 건강 식단으로 여정을 시작한다. 매일 아침 간단한 카디오 프로그램(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가볍게 풀 뒤 오전에 고강도 트레이닝 위주의 운동, 오후에는 제주의 자연을 누빌 수 있는 야의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단은 제주 지역 음식을 이용한 건강 식단으로 이뤄져 있다. 저녁 식사 이후엔 그간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느라 지친 몸을 풀어주는 스파가 준비돼 있다. 가격은 1인 기준 73만7000원부터다.

●서울신라호텔 ‘스타트 업’ 패키지…트레이너가 1대1 맞춤운동

서울신라호텔은 개인 트레이너가 체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운동법을 제안해주는 ‘스타트 업’ 패키지를 3월31일까지 운영한다. ‘시타라스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1대1 맞춤 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식을 즐기며 완벽한 재



국내 호텔들이 기존에 외국 리조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액티비티 위주의 토달 건강관리 패키지를 내보 주목받고 있다. 관광과 레저, 휴식, 건강이 모두 포함된 복합 상품 ‘라이프 피트니스 스타일링’(LFS) 패키지를 운영 중인 해비치.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패키지다. ‘시타라스’는 신라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들에 한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라호텔은 잭 웰치와 조지 소로스 등 세계적 리더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존 시타라스가 운영하는 미국 뉴욕의 시타라스 피트니스와 제휴를 맺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 업’ 패

키 고객들은 또 최고층에 위치한 펜트 하우스 분위기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건강식과 함께 풍성한 메뉴와 주류도 즐길 수 있다. 최근에 새롭게 리뉴얼한 사우나 혜택도 포함돼 있다. 가격은 45만원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확 바뀐 ‘디아블로3’ 즐길 준비 되었는가?

확장팩 ‘영혼을…’ 내달 25일 발매
WoW 확장팩 ‘드레노어…’도 공개

새로운 ‘와우’(WoW)와 ‘디아블로3’가 온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2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다중접속확장수행게임(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와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디아블로3’의 확장팩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장엔 본사 개발자들이 참석해 새 콘텐츠를 직접 소개했다.

먼저 장수 인기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장군주’를 선보인다. 선임 게임디자이너 브라이언 홀린 카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대한 수많은

피드백에 기반해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콘텐츠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드레노어의 전장군주’는 워크래프트의 격동기를 다룬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다. 확장팩에는 오크와 드레나이 종족의 고향인 새로운 지역 ‘드레노어’가 추가된다. 유저는 서리불꽃 마루와 어둠달 골짜기 등에서 모험을 즐길 수 있다.

한국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하우징 시스템도 눈에 띈다. 유저는 드레노어에 자신만의 주둔지를 건설하고 확장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던전과 공격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원하는 캐릭터를 즉시 90레벨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 새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3’ 확장팩 콘텐츠를 국내 공개했다.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아블로3:영혼을 거두는 자’를 소개하고 있는 게임디렉터 조쉬 모스키에라.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다. 이 게임의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다. 전 세계에 1500만장 이상 판매된 ‘디아블로3’의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도 주목받고 있는 신규 콘텐츠. 게임디렉터 조쉬 모스키에

라는 ““영혼을 거두는 자’에는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스토리나 캐릭터 등 신규 콘텐츠 외에도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대거 선보여 ‘디아블로’ 시리즈 특유의 재미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확장팩은 타락한 지혜의 대천사가 죽음의 천사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저는 전설 속 도시를 누빌 수 있다. 즐길 거리도 많아진다. 먼저 캐릭터 레벨이 최대 70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새 캐릭터 성전사가 합류한다. 기존의 영웅들에게도 새로운 기술과 능력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재설계된 전리품 시스템과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전설 아이템 등 플레이어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추가된다. 이 게임은 3월25일 발매될 예정이다. 예약 구매자에게는 신작 공성대전액션(AOS) 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악마사냥꾼 캐릭터를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13개국 유학생에 장학금 지급



2014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아시아·아프리카 13개국 유학생 103명에게 총 4억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근 이사장을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 13개국 대사 및 외교관, 장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유학생 모두에게 일일이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낮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소중한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정문화재단은 국경을 떠나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부영그룹 창업주인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지난 2008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2010년부터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아프리카 대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인당 연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학생 382명에게 총 27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세호 기자 sol@donga.com

삼성전자, 1630만 화소 ‘갤럭시 카메라2’ 출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카메라인 ‘갤럭시 카메라2(사진)’를 20일 국내 출시했다. 이 제품은 1630만 화소 BSI(Back Side Illumination) CMOS 이미지 센서와 광학 21배 줌렌즈를 적용해 넓은 화각과 고감도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또 4.8인치 대화면 터치스크린을 통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4.3(젤리빈)을 적용해 최신 스마트폰과 같은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 와이파이뿐 아니라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적용해 스마트 기기 간 연동을 강화했다. 1.6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2GB 메모리, 2000mAh 배터리를 달았다. ‘갤럭시 카메라2’는 화이트 색상으로 우선 출시되며, 출고가는 49만9000원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